5~6월 가뭄때 다목적댐 역할 톡톡

주암·장흥댐, 저수지 농용수 완벽 공급

영산강, 보 건설로 홍수조절능력 향상

하늘에서 바라 본 주암댐 전경. 도내 용수공급은 물론 홍수조절과 전기생산까지 하는 다목적 댐이다.

인류가 수렵채집 단계를 벗어나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정주(定住)하던 1만여년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치수(治水)에 대한 고민은 변함없다. 특히 지난 5~6월 지속된 극심한 가뭄은 다시 한번 수자원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이상 현상으로 극심한 가뭄 또는 국지성 폭우로 인해 어느 때보다 자연재해 발생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태풍과 집중 강우 대비=K-water 전남지역본부는 다목적 댐의 물관리 체계구축을 비롯해 광역상수도 공급능력 향상, 비상급수 체계 구축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있다. 주암댐과 장흥댐, 수어댐, 평림댐은 도내 홍수조절과 함께 안정적 용수공급 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장흥댐의 경우 지난해 8월 태풍 '무이파'(MUIFA) 내습시 댐 유역에 강풍과 함께 시간당 30㎜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장흥댐에 총 1500만t의 물이 흘러들어왔다. 장흥댐을 관리하는 K-water 전남 서남권관리단은 일단 홍수 유입량 전량을 댐에 가둔 후 이튿날 단계적으로 방류(최대 초당 100㎥)해 하류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장흥댐은 올해 가뭄시에도 돋보였다. 지난달 말에 광역상수도와 농수로를 연계해 저수율이 30% 미만인 도내 10개 저수지에 용수를 비상 공급해 가뭄 극복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를 통해 장흥댐은 홍수조절과 용수공급 등 다목적 댐의 효용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영산강 수계(水系) 재산피해는 ▲2002년 557억원 ▲2003년 67억원▲2004년 1031억원 ▲2005년 6400만원 ▲2006년 8억2000만원 ▲2007년 63억4500만원 ▲2009년 180억원 ▲2010년 42억원 ▲2011년 48억원에 달한다. 1년 가운데 7월(호우)~ 8월(태풍) 두 달간 집중된 피해이다.

이에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따라 조성된 다기능 보와 홍수 조절지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사업비 3조1700억원을 투입해 다기능보 2개소(승촌보·죽산보)와 3000㎥ 규모의 하도를 준설했다. 또 현재 홍수조절지 2개소(담양·화순)와 농업용 댐 둑 높이기 사업(14개소), 하구둑 배수문 증설(2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효과=K-water 전남지역본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효과로 크게 ▲홍수조절능력(1억2000㎥)과 용수량(1억1000㎥) 증대 ▲수질개선(3~5등급→2등급 75% 이상) ▲자전거 길과 오토 캠핑장 설치 등 국민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수변 랜드마크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등을 꼽고 있다.

담양과 화순에 건설중인 홍수 조절지는 영산강유역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유역중심의 치수대책으로 마련됐다.

평상시는 담수하지 않고 일정량 이상의 홍수발생시 일시 저류(貯留)시켜 홍수를 예방하게 된다. 담양 홍수조절지의 경우 조절지 지점 200년 빈도 홍수량 80%(550㎥/s→110㎥/s)를 경감해 나주 수위표 기준 홍수량 1.3%(110㎥/s)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담양과 화순 홍수조절지 공사 공정률은 90%로, 오는 11월 중순께 완공될 예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완도 청산도 친환경 유기농 섬으로

무농약 생산단지·생태마을 조성 선포식

완도 청산도가 '친환경 유기농 섬'으로 조성된다.

완도군은 청산도의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무농약, 무공해, 무질병 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친환경 유기농 생태의 섬으로 만든다.

군은 최근 청산면사무소에서 김종식 군수를 비롯해 김정술 의회의장, 김주·조인호 의원, 지복남 청산농협장, 협약부락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농약 유기농 생산단지' 실현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은 청산면 이장단장의 유기농 생태마을 실현을 위한 결의문 낭독과 함께 완도군과 구들장 논 주변 양지, 부흥, 중흥, 상서, 청계 등 5개 마을간 유기농 생태마을 만들기 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김 군수는 5개 마을대표에게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우선 군은 구들장 논 주변 5개마을에 70ha 규모의 유기농 쌀 재배단지를 조성한다. 이들 마을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 농자재만을 사용하고 화학비료, 농약사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청산도에서 생산된 유기 농산물은 완도군 이숍(e-shop)과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통해 판로와 가격을 보장한다. 또 군은 상표등록과 포장지를 개발하고, 유기농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종식 군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청산도를 지키기 위해 무농약 등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생산단지를 확대해 건강한 땅에서 숨 쉬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슬로시티' 청산도는 연간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국내 최고의 섬 관광지다. 100농가가 968ha에서 벼, 마늘, 콩, 고사리 등을 재배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2015년 농축산물 판매 4조원대 달성

농협 전남지역본부 경제사업 전진대회

김수공 경제대표이사를 비롯해 도내 농·축협 조합장들이 23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서 경제사업 활성화 전진대회를 갖고 2015년까지 4조원의 농·축산물을 판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올해 농·축산물 공동판매 3조원을 조기 달성하고 오는 2015년까지 4조원대로 도약할 계획이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23일 김수공 농업경제 대표이사와 관내 21개 시·군지부장, 153개 농·축협 조합장·지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사업활성화 추진을 위한 전진대회를 가졌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오는 2015년까지 4조원의 농·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원예농산물에 대한 공동선별·공동출하 조직을 조합당 3개 이상 육성, 도내 전체 400개의 정예화된 공선출하조직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시장에 강한 연합사업단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단은 통·폐합하고 인력과 자금을 집중 투자해 2015년까지 사업량을 2000억원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지역 주작목인 마늘·양파·배추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계약재배 사업을 2015년까지 50만8000t으로 대폭 확대해 농협의 출하조절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수공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산지유통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해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농협은 이를 책임지고 팔아 주는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생태계·수질 개선…영산강 원래 모습 되찾아간다"

신송운 K-water 전남지역본부장

신송운 K-water 전남지역본부장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매년 겪었던 가뭄과 홍수의 아픔에서 벗어나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방치돼 오염된 물이 흐르던 영산강을 생태계가 살아나고 깨끗한 물이 넘치는 원래의 모습으로 되살렸다"면서 "나아가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여가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토 재창조 사업이었다"고 밝혔다.

신 본부장은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영산강 살리기사업을 지난 2009년부터 착수해 그동안 다기능보 2개소(승촌보·죽산보), 수변 생태공간 70개소, 홍수조절지 2개소, 강변 저류지 1개소 등을 건립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본부장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다목적 댐의 물관리 체계구축으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은 물론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기동기자 song@

전남도 은퇴자 도시 후보지 46곳 선정 투자유치 본격화

전남지역 은퇴자 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등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추진 중인 은퇴자 도시 후보지는 모두 46곳으로 기온과 경관, 땅값 등의 여건을 감안해 선정됐다.

전남도는 이들 후보지별로 투자자를 유치,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한 후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장흥군 우드랜드 인근에 들어서는 정남진 로하스타운의 경우 13가구의 분양이 최근 완료됐다. 이곳에는 오는 2019년까지 주거·문화 복지센터·복합체육시설·국내 최초 통합의료센터 등이 세워진다.

현재 다른 은퇴도시 조성 사업 후보지들에 대해서도 4개 업체와 투자계획을 협의 중이다.

또 대기업과 정부투자기관, 금융권 등 700여곳에 투자유치 서한문을 발송하고 투자실현을 위한 맞춤형 투자설명회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자유치 전담팀을 구성, 초청설명회와 대상지 답사 등도 추진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입학문의 ▶ 062-605-1114

www.kwangshin.ac.kr

2013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과	수시 1차	수시 2차
인문	신학과	20	1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0	6
사범	유아교육과	9	7
예능	음악학과 (피아노, 성악, 현악, 관·타악, 지휘,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6	4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20	-
총계		67	28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수시 1차모집
· 원서접수: 2012. 8. 20(월) ~ 9. 11(화)
· 전 형 일: 2012. 9. 20(목)

수시 2차모집
· 원서접수: 2012. 11. 12(월) ~ 16(금)
· 전 형 일: 2012. 11. 29(목)

■ 특별전형
· 전학과 : 지역인재양성 전형
· 신학과 : 교역자, 목회자사모, 교회봉사자, 교역자자녀,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전형
· 유아교육과 : 가정주부 전형

■ 장학제도
매학기 약 30%이상의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혜택이 주어지며, 기타 가족장학금, 보훈장학금, 독지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만학도장학금 등 지급

기독교명문대학!
진리로 미래를 여는 지성인의 요람!

입학문의 ▶ 062-605-1115

2012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교설립 58주년 (1954~2012)

【 일반전형 】

■ 주요일정
① 원서접수 : 2012. 8. 6(월) - 8. 20(월)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전 형 일

대학원명	학과	필기 및 면접고사
일반대학원	신학연구과(M.A.T.)	2012. 8. 24(금) 오후 2:00
	장애유아통합교육학과(M.Ed.)	2012. 8. 24(금) 오후 2:00
신학대학원	신학과(M.Div.)	2012. 8. 24(금) 오후 2:00
교육대학원	교육학과(M.Ed.)	2012. 8. 24(금) 오후 2:00

③ 합격자발표 : 2012. 8. 28(화) 오후 2:00
④ 등 록 기 간 : 2012. 8. 29(수) - 31(금)

▼대학원 과정별 모집정원 현황

대학원	과정	학과	전공	모집정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연구과(M.A.T.)	-	○
		장애유아통합교육학과(M.Ed.)	-	○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유아특수,초등특수,상담	○

◀ QR코드를 스캔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